廣隆寺의 초기밀교와 元興寺*

林南壽**

〈차 례〉

1. 머리말
2.『廣隆寺資財交替實錄帳』에 보이는 초기밀교적 요소
3. 廣隆寺의 불상과 奈良시대 초기밀교의 전통
4. 廣隆寺의 역대 別當과 元興寺
5. 元興寺의 초기밀교
6. 廣隆寺의 재건과 초기밀교
7. 맺음말

【국문초록】

본 논문에서는 廣隆寺에 현존하는 문헌자료와 불상을 검토하여 廣隆寺의 초기밀교적인 성격을 밝히고, 그것이 어떠한 경로로 廣隆寺에 수용되었는지에 대하여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첫째,『實錄帳』에 기록된 廣隆寺의 불상들은 奈良시대에 이미 유행했던 초기밀교의 양상을 보이고 있었으며, 경전과 건물도 奈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7-C-000-302).

** 영남대학교 조형대학 미술학부 부교수

良불교의 요소를 지니고 있었다.

둘째, 『補任次第』를 검토한 결과, 8세기 후반에서 11세기에 이르는 廣隆寺의 역대 別當은 元興寺 三論宗 계열의 승려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廣隆寺의 교학이나 초기밀교는 元興寺로부터 수용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셋째, 元興寺의 초기밀교는 神叡와 尊應, 勝虞를 거쳐 護命에 계승된 虛空藏法을 통하여 알 수 있으며, 금당에 안치된 千手觀音像, 탑당원의 약사여래입상은 元興寺의 초기밀교의 實例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元興寺의 초기밀교는 別當을 통하여 廣隆寺에 수용되었고, 불상의 조성에도 元興寺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마지막으로, 道昌은 南都佛教의 승려로써 眞言密教의 직계가 아니었으며, 당시의 平安京의 불교 사정과 진언밀교 가람의 전형이 없는 점 등이 고려된 결과 초기밀교적인 성격이 부각된 가람으로 재건되었다고 추정하였다.

주제어: 광륭사(廣隆寺), 초기밀교, 『廣隆寺別當次第』, 원흥사(元興寺), 나라(奈良)불교

1. 머리말

일본의 廣隆寺는 한국의 국보 83호 반가사유상과 흡사한 寶冠彌勒像으로 유명하지만, 寺內에는 밀교 존상들도 많이 안치되어 있을 뿐 아니라 廣隆寺가 소속된 종단도 眞言宗 御室派이기 때문에 京都의 대표적인 밀교사찰로써도 널리 알려져 있다.

최근, 필자는 廣隆寺가 9세기 초에 화재를 당한 후에 靈驗藥師像 중심의 靈驗道場으로 재건된 사실을 밝히고, 그 배경으로써 당

시 재건을 이끌었던 道昌의 밀교 행적에 주목한 바 있다.[1] 그런데 廣隆寺가 재건된 9세기는 일본에 眞言密敎가 도입되어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시기이었고, 道昌도 眞言宗의 개창자인 空海의 제자이었으므로, 재건후의 廣隆寺는 진언밀교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재건 후의 廣隆寺에 안치된 불상은 奈良시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初期密敎[2]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경내의 건물들도 진언밀교와는 무관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廣隆寺는 어째서 진언밀교를 도입하지 않고 종래의 초기밀교를 계승하였는지, 그것은 어떠한 경로로 廣隆寺에 수용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논문에서는 문헌자료에 기록된 廣隆寺의 재건 가람과 안치 불상을 검토하여 廣隆寺의 초기밀교적인 성격을 밝히고, 廣隆寺가 元興寺를 통하여 초기밀교를 수용하는 배경과 그 의의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2.『廣隆寺資財交替實錄帳』에 보이는 초기밀교적 요소

『廣隆寺緣起』에 의하면, 廣隆寺는 818년에 큰 화재를 당하여 堂塔回廊 등이 모두 소실되었다고 전한다. 그런데 廣隆寺는 延曆 연간(782-805)에 승려들의 내분으로 말미암아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가람이 소실되어도 곧바로 재건하지 못하고[3], 18년후인 836년에

---

1) 졸고,「廣隆寺의 本尊佛의 變化와 그 意義」,『미술사학연구』244, 2004, pp. 5-32.

2) 各佛尊의 진언(다라니)을 외어 治病과 延命, 招福 등의 현세이익을 이루려는 세속불교의 경향을 초기밀교라고 한다. 특정한 경전에 의거하거나 체계화된 것이 아니므로 古密敎 또는 雜密이라고도 부른다. 이에 비하여『大日經』이나『金剛頂經』에 의거하여 卽身成佛을 목표로 하는 중기밀교를 純粹密敎라고 하며, 空海가 개창한 진언밀교는 이에 해당한다.

3)『廣隆寺別當補任次第』제7대 별당 明澄條, 제8대 별당 宣融條,『廣隆寺別當

別當으로 취임한 道昌에 의하여 겨우 재건이 시작되어 858년 무렵에 완공되었다. 가람 소실에서 재건에 이르기까지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었다.[4] 이 기간 동안 일본의 불교계는 眞言宗과 天台宗의 개창이라는 큰 변혁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도창은 진언종의 개창자 空海의 제자이었으므로 廣隆寺의 재건에는 진언밀교적인 요소가 반영되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재건 이후에 작성된 『廣隆寺資財交替實錄帳』(890년, 이하 『實錄帳』)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 예상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볼 수 있다. 이에 『實錄帳』의 金堂條에 기록된 불상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금당조의 서두에는 靈驗藥師佛檀像一軀, 金色彌勒菩薩像一軀, 金色阿彌陀佛像一軀와 脇侍菩薩像二軀, 不空羂索菩薩檀像一軀, 金色彌勒菩薩像一軀 등 7구가 있었는데, 이 불상들에 대해서는 '已上佛菩薩像 本自所奉安置'라고 註記되어 있다.

毛利久씨는 註記에 보이는 '本'의 의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즉, 廣隆寺는 『實錄帳』 작성에 있어서 818년의 화재를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인식하여 화재 이전부터 전래하는 것과 그 이후에 안치된 것을 구별하였다고 지적하고, 7구의 불상은 818년의 화재 이전부터 안치되었던 불상이라고 주장한 것이다.[5] 이러한 毛利씨의 지적은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필자는 毛利씨의 견해에 동의하는 바이다.

7구의 불상 중에서 밀교와 관련이 있는 것은 靈驗藥師像과 不空羂索菩薩檀像이다. 靈驗藥師像은 797년에 안치된 것이나[6], 현존하지 않으므로 그 像容은 알 수 없지만, 안치시기를 고려한다면 元

補任次第』원문은 지면 관계상 생략하며, 졸저, 『廣隆寺史の研究』, 中央公論美術出版, 2003, pp. 270-277을 참조하기 바란다.

4) 졸고, 前揭論文, pp. 5-32.

5) 毛利久, 「廣隆寺本尊と移轉の問題」, 『史迹と美術』189, 1948, pp. 201-214.

6) 졸고, 前揭論文, pp. 5-32.



그림1 藥師如來像 元興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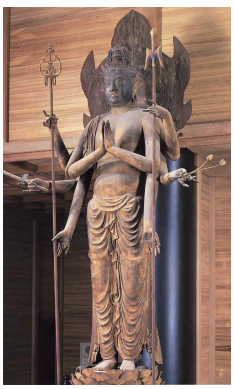

그림2 廣隆寺 不空羂索觀音像

興寺(그림1)나 神護寺의 약사여래입상과 같은 위엄과 중후한 양식을 지닌 모습으로 상상할 수 있겠다. 약사여래는 대표적인 초기밀교계통의 尊格이며, 藥師寺와 西大寺, 新藥師寺, 唐招提寺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白鳳시대부터 유행하기 시작하여 奈良시대에 크게 성행하였고 平安시대까지도 이어졌기 때문에 平安京 천도(794년) 직후에 안치된 靈驗藥師像은 奈良시대 이후의 약사신앙의 성행에 따라 조성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不空羂索菩薩檀像은 靈寶殿에 현존하는 不空羂索觀音菩薩立像(像高 311cm, 그림2) 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7] 불공견삭관음보살은 東大寺 法華堂의 不空羂索觀音菩薩立像(749년경 조성, 그림3)과 興福寺 南圓堂의 不空羂索觀音菩薩坐像(746년 조성)의 예와 같이 이미 奈良시대부터 신앙되어지던 초기밀교계통의 존격이므로, 廣隆寺의 불공견삭관음보살상은 약사상과 마찬가지로 奈良시대 초기밀교의 전통을 계승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實錄帳』의 金堂條에는 재건 이후의 불상으로서, 四副阿彌陀淨土一帳, 十一面四十手觀世音菩薩檀像一軀, 五副萬佛畵

7) 水野敬三郎等, 『日本彫刻史基礎資料集成 平安時代 重要作品篇』2, 1976, pp. 61-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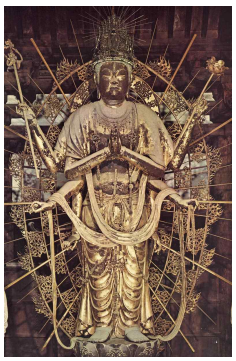

그림3 東大寺 不空羂索觀音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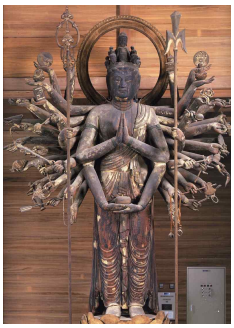

그림4 廣隆寺 千手觀音像



그림5 葛井寺 千手觀音像

像二軀, 聖觀世音菩薩像一軀, 藥師佛檀像一軀, 觀世音菩薩檀像二軀, 十一面觀世音菩薩檀像一軀, 聖僧一體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 중에서 聖僧像을 제외하면 금당내의 조각상들은 약사여래상과 초기밀교계의 變化觀音像이 포함된 관음보살상으로 나눌 수 있는 바, 이들 존격의 대부분은 法隆寺 금당 벽화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미 白鳳시대에는 신앙되고 있었다.

특히 十一面四十手觀世音菩薩像은 靈寶殿에 현존하는 千手觀音立像(像高 264cm, 그림4)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그 조성시기는 9세기 중반으로 추정되고 있다.[8] 따라서 이 상은 平安시대에 조성된 것이기는 하지만, 천수관음상의 존격은 東大寺의 講堂과 千手堂의 千手菩薩像이나 大阪 葛井寺의 千手觀音像(그림5)의 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奈良시대에 이미 많이 조성되고 있었다. 따라서 재건이후에 조성된 불상들도 이미 白鳳시대와 奈良시대에 유행하던 존격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實錄帳』에 의하면, 재건 廣隆寺의 강당에는 阿彌陀佛像一軀, 地藏菩薩像一軀, 虛空藏菩薩像一軀, 毘沙門像一軀가 안치되어 있었다. 그 중에서 아미타불상은

8) 水野敬三郎等, 上揭書, pp. 64-65.


그림6 廣隆寺 講堂三尊像

尙藏[9] 永原御息所가, 지장보살상과 허공장보살상은 道昌이 각각 발원하였다고 한다(그림 6). 이 상들도 平安시대 초기에 조성된 불상이기는 하지만, 모두 奈良시대에는 신앙되고 있었던 존격들이었다.

이처럼 廣隆寺의 금당과 강당에 안치된 불상들은 白鳳시대에서 奈良시대를 거쳐 平安시대 전기에 유행한 초기밀교와 관련된 존격이며, 平安시대의 밀교의 유입과 더불어 나타나기 시작한 明王이나 大日如來 등 진언밀교 계통의 불상들은 보이지 않는다. 즉, 廣隆寺는 진언밀교의 개창자인 空海의 제자 道昌이 가람을 재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奈良시대의 초기밀교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양상은 불상뿐 아니라 금당과 강당에 안치되었던 경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實錄帳』에 의하면, 금당에는 『大般若經』이 안치되어 있었으며, 강당에는 『金剛般若經』, 『法華經』, 『最勝王經』, 『無量壽經』, 『普賢經』, 『般若心經』이 안치되어 있었다. 금당과 강당에 『大般若經』 등 般若部의 경전이 주로 안치된 사실은, 이들 경전이 空에 대하여 연구하는 三論宗과 관련된 경전이라는 점에서[10] 廣隆寺의 교학과 奈良佛敎, 특히 三論宗과의 밀접한 관계를 시사한다. 그 외의 경전들도 이미 奈良시대부터 널리 읽히던 것이며, 진언밀교의 근본 경전인 『大日經』과 『金剛頂

9) 尙藏은 천황의 측근에서 奏請과 傳宣 등을 담당하던 內侍司의 長으로, 여성이 임명되었으며, 관위는 准正三位이다.

10) 三論宗의 기본서인 中論과 十二門論은 般若經의 空의 사상을 체계화한 것이므로, 일찍이 日蓮은 『法華取要鈔』에서 「三論宗은 一切의 經中에서 般若經을 第一로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經』을 찾아 볼 수 없는 바, 이 또한 廣隆寺의 교학이 진언밀교와는 무관한 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재건에 맞춰 건립된 主要堂宇도 金堂과 講法堂, 그리고 食堂, 僧房과 창고 등 飛鳥시대와 奈良시대의 사찰에 보편적으로 세워졌던 건물이며, 진언밀교 사찰 특유의 五大堂이나 灌頂堂 등은 보이지 않는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廣隆寺는 818년의 가람 燒失 이전과 재건 이후의 안치 불상에서 알 수 있듯이 藥師如來像이나 阿彌陀如來像을 비롯하여 不空羂索觀音像, 千手觀音像, 十一面觀音像 등 奈良시대 이전부터 널리 신앙되어져 왔던 변화관음상을 중심으로 한 초기밀교적인 성격이 강한 사찰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재건된 건물과 안치된 경전들도 奈良불교의 전통을 나타낸다. 그렇다면 廣隆寺에 안치된 불상들의 양식과 형식상의 계통에 대하여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廣隆寺의 불상과 奈良시대 초기밀교의 전통

廣隆寺에는『實錄帳』에 기재된 平安시대 전기의 불상이 5구 현존하고 있다. 본장에서는 이들 불상의 도상을 중심으로 奈良시대 초기밀교와의 관련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不空羂索觀音像은, 상의 높이에 비하여 머리가 작으며, 과장이 없고 단정한 몸매, 자연스러운 몸의 움직임 등 奈良시대 불상의 요소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에 하반신에 걸친 裙衣의 주름은 다소 번잡하고, 또 그 가장자리가 나풀거리는 표현은 神護寺의 약사여래입상 등 平安시대 초기 불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이다.[11]

---

11) 佐々木守俊,「廣隆寺藏 不空羂索觀音菩薩立像」,『國華』1268. 2001, pp. 20-24.


그림7-1 廣隆寺像의 合掌手


그림7-2 法華堂像의 合掌手

필자가 이 상에서 특히 주목하고 싶은 것은 第1手, 즉, 合掌手가 약간 벌어져 있는 점이다(그림7-1). 이 부분은 후대의 수리가 보이지 않고[12] 원형을 그대로 남기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合掌手의 형태는 조성 당시에 의도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와 유사한 예가 바로 東大寺 法華堂의 不空羂索觀音菩薩立像이다. 法華堂像도 廣隆寺像과 마찬가지로 合掌手가 약간 벌어져 있는데(그림7-2), 이 손 안에는 寶珠가 들어있어서 관음과 보주와의 관련성을 알려주고 있다.[13] 그렇다면 廣隆寺像은 조성시기와 재질, 양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손의 형태로 보아 合掌手에 보주를 넣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 점에서 奈良시대의 도상과 관련성을 지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또한, 廣隆寺像의 무릎 사이에 보이는 소용돌이 문양(渦紋)에 대해서는 平安시대 목조불상의 특징으로 일컬어지고 있으나, 그 문양도 이미 法華堂像의 무릎 사이에서 찾아볼 수 있으므로 平安시대에 들어서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奈良시대에 이미 사용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廣隆寺像의 소용돌이 문양도 奈良불교미술의 전통에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廣隆寺의 千手觀音像은 11面 40手, 本面 2眼으로, 『千光眼觀自在菩薩秘密法經』에 의거하여 조성된 상으로 알려져 있

12) 水野敬三郎等, 前揭書, pp. 61-63.
13) 淺井和春, 『不空羂索・准胝觀音像』, 至文堂, 1998, pp. 41-43.

다.[14] 그러나 廣隆寺 천수관음상은 2眼이라는 점에서『千光眼觀自在菩薩秘密法經』에서 규정하는 본면 3眼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점에 대하여 山岸公基씨는 葛井寺 千手觀音像으로 대표되는 奈良시대에서 平安시대 초기에 이르는 일본의 천수관음상들이 대부분 2眼인 점을 지적하고, 3眼으로 조성되는 중국의 천수관음상과는 구별된다고 주장하였다.[15] 따라서 廣隆寺 천수관음상의 2眼은 奈良시대에 성립한 천수관음상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한편, 강당에 안치된 永原御息所 발원의 阿彌陀如來像은 像高 261.5cm, 재질은 木心乾漆로써 奈良시대 조각 양식의 전통을 이은 平安시대 초기의 작품이며, 조성시기는 840년 경으로 추정되고 있는 바[16], 필자는 아미타불상의 수인에 주목하고자 한다(그림8). 이 수인은 양손의 엄지와 무명지를 맞대고 있는 설법인 모양으로,『陀羅尼集經』阿彌陀佛輪印第十三의 다음 기사에 의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7]


그림8 廣隆寺阿彌陀像의 手印

左右手。以二大指各捻無名指頭。右壓左當心。若欲說法論義之時。日日作此法。一切歡喜。死生阿彌陀佛國。若欲求財貨飮食等物者。-중략-

14) 水野敬三郎等, 前揭書, p. 65.

15) 山岸公基, 「千手觀音像に關する二、三の問題--経軌と8～9世紀の中國(四川省)・日本の作例をめぐって」,『シルクロード學研究』11, 2001. pp. 127-136.
_____,「盛唐の千手觀音彫像と葛井寺千手觀音像」,『仏教芸術』262, 2002, pp. 99-113.

16) 淺井和春,「廣隆寺講堂阿弥陀如來坐像の造立年代について」,『國華』974, 1974, pp. 5-11.
長岡龍作,「阿彌陀図様の継承と再生-光明皇后御齋會阿弥陀如來像をめぐって」,『文化史の構想』, 吉川弘文館, 2003. pp. 272-300.

17) 大正新修大藏経 第18卷, p. 802.

所求如意。又若人熱病。- 중략 - 卽差。

이 경에 의하면, 阿彌陀佛輪印의 공덕으로써 死後의 아미타여래 정토에의 왕생과 함께 財貨와 飮食의 만족, 治病 등을 들고 있기 때문에, 아미타신앙에는 死者의 追善供養뿐 아니라 현세기복을 기원하는 초기밀교적인 요소도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수인의 기원은 奈良시대 중반에 조성된 法隆寺 傳法堂의 아미타여래상(그림9)에서 찾을 수 있으며, 유사한 예로써는 興福院의 아미타여래상, 西大寺의 傳寶生如來像 등을 들 수 있다. 長岡龍作씨는 이러한 수인의 불상이 光明皇后의 追善을 위한 御齋會의 본존에서 시작되어 계승되고 있는 점에 주목한 바 있으며[18], 中野聰씨는『陀羅尼集經』의 기사에 주목하여 法隆寺 傳法堂像이 光明皇后의 질병쾌유와 정토왕생을 목적으로 발원된 것으로 추정하였다.[19] 이와 같은 선행연구에 의하면, 廣隆寺 강당의 아미타불상은 궁중 여인의 발원이라는 점과 아미타불륜인의 수인이라는 점에서 法隆寺 傳法堂 아미타여래상에 보이는 초기밀교적 신앙을 계승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림9 法隆寺阿彌陀像의 手印

그리고, 강당에 안치된 虛空藏菩薩像과 地藏菩薩像은 道昌이 860년대에 발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20] 虛空藏菩薩像은 오른손을 들어올려서 손바닥을 위로 하고, 왼손은 복부 앞에서 가볍게 쥐고 있으며, 지물로써 3辨寶珠가 있는 蓮華莖을 양손으로 들고

18) 長岡龍作, 前揭論文. pp. 272-300.
19) 中野聰,「法隆寺伝法堂西の間阿弥陀如來坐像の印相について」,『美術史研究』 41, 2003, pp. 147-164.
20) 水野敬三郎等, 前揭書, pp. 54-60.

있다. 이 지물은 후보된 것이기는 하지만, 양손의 자세로 보아 다른 지물을 지녔을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조성 당시의 지물도 보주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奥武夫씨에 의하면, 허공장보살의 지물은 보주만을 지니는 경우와 보주와 검을 함께 지니는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顯教와 초기밀교계 경전에 주로 나타나며, 후자는 『大日經』과 그 주석서 등 진언밀교 계통의 경전에서 나타난다고 한다.[21] 奥씨의 견해에 따른다면 道昌이 발원한 허공장보살상은 현교나 초기밀교계의 경전에서 규정하는 지물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 상 또한 奈良시대의 초기밀교적인 성격을 계승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허공장보살상과 함께 강당에 안치된 地藏菩薩像도 道昌이 발원한 것인데, 이처럼 허공장보살상과 지장보살상을 함께 안치하는 예로써 東大寺 講堂을 들 수 있다. 東大寺의 강당에는 본존 千手觀音菩薩像의 협시로써 허공장보살상과 지장보살상이 안치되어 있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장보살의 지물은 보주이므로, 이 과 지장천수관음보살과 허공장보살, 지장보살은 현세기복적인 바와 같이 성격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東大寺 강당은 초기밀교적인 성격인 강한 공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廣隆寺 강당의 불상 구성은 본존이 아미타여래상이므로 東大寺 강당의 천수관음상과는 존격이 다르지만, 관음이 아미타여래의 引攝者이며, 아미타불륜인을 맺은 인상에서 초기밀교적인 특징을 찾을 수 있는 만큼, 기본적으로는 東大寺 강당과 성격을 같이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廣隆寺에 안치된 平安시대 초기의 불상 5구는 奈良시대 초기밀교 불보살상에 보이는 도상의 전통을 지니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東大寺 法華堂과 강당, 法隆寺 傳法堂 등 황실관련의 사찰 또는 불상과 연관성을 보이고 있으므

21) 奥武夫, 『虛空藏菩薩像』, 至文堂, 1998, pp. 17-47.

로, 廣隆寺의 불상은 奈良시대의 官寺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다음 장에서는 廣隆寺의 초기밀교는 어떻게 성립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4. 廣隆寺의 역대 別當과 元興寺

奈良시대의 廣隆寺에 관한 문헌자료는 거의 남아있지 않으므로 廣隆寺와 奈良불교와의 관계를 고찰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지만, 『廣隆寺別當補任次第』(이하 『補任次第』)는 廣隆寺의 역사와 교학을 살펴볼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補任次第』는 고대로부터 중세에 이르는 역대 廣隆寺의 別當에 대하여 기록한 것으로 현재의 모습으로 완성된 것은 17세기경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사료가치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바, 追塩千尋씨는, 1324년에 편찬된 『聖德太子平氏伝雜勘文』에 『補任次第』의 道昌에 관한 기사의 일부가 거의 그대로 인용된 사실에 주목하여 『補任次第』가 別當 교체 때 또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작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며, 『補任次第』의 사료가치가 낮지는 않다고 평가하였다.[22]

追塩씨의 지적과 같이, 道昌에 관한 기사가 『聖德太子平氏伝雜勘文』에 거의 그대로 인용된 것은 『補任次第』의 道昌 以前의 別當補任 기사가 1324년 이전에 기록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補任次第』는 적어도 鎌倉시대에는 성립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補任次第』의 사료가치가 낮지 않다고 보는 追塩씨의 견해는 타당성을 지니고 있지만, 『補任次第』 본문의 검토에

22) 追塩千尋, 「道昌をめぐる諸問題」, 『南都佛教』67, 1992, pp. 35-58.

는 이르고 있지 않으므로 필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고찰을 시도하고자 한다.

『補任次第』는 제1대에서 제51대에 이르는 역대 별당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바, 각별당의 기술 방식에 따라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제1부분은 각별당의 보임년도가 기록되었으며, 제1대부터 제8대 별당이 이에 해당한다. 제2부분은 각별당의 보임된 해와 더불어 월일까지 기록된 곳으로, 제9대에서 제34대의 별당들이다. 제3부분은 별당들의 이름만이 기록되었으며, 제35대 이후의 별당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補任次第』에서 가장 주목할 곳은 보임 날짜까지 기록된 제2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아마도 廣隆寺 내의 직접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에 비하여 제1부분은 가람 재건 이전의 별당들이 해당하므로, 이 부분의 기록은 간접자료를 바탕으로 기록되었고, 제3부분은 가장 후대임에도 불구하고 간략한 기술방식임을 고려한다면 제1부분 및 제2부분과는 별도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廣隆寺緣起」(836년, 『朝野郡載』所收)에는 廣隆寺의 별당이 大別當 壽寵과 小別當 道昌으로 구별되어 기록되어 있는데 비하여 『補任次第』에는 壽寵은 보이지 않고 道昌이 대별당으로만 기록되어 있으며, 「廣隆寺緣起」에 등장하는 별당 泰鳳의 이름이 『補任次第』에 보이지 않는 점은 주의를 요한다. 그렇다면, 『補任次第』는 각별당의 교체 때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後代의 어느 시점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前代의 자료들을 취합하여 작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필자의 견해는 이 점에서 『補任次第』가 별당의 교체 때 또는 일정한 간격으로 작성되었다고 보는 追塩씨의 의견과는 차이가 있다.

한편, 『補任次第』는 별당들의 교학적 배경에 따라 크게 4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제1그룹은 제1대 道昭에서 제8대 宣融에 이르는 그룹으로, 註記에 의하면 이들은 元興寺 三論宗 계열의 승려들이

다. 제2그룹은 제9대 道昌에서 제23대 時圓까지의 그룹으로, 역시 註記에 의하면 元興寺 三論宗이며, 그중 9명이 東寺 入寺 또는 眞言宗이라고 기록된 점으로 보아 이들은 三論宗을 主宗으로 하면서 진언밀교를 익힌 그룹으로 추정된다. 제3그룹은 제25대 寬助에서 제31대 禎喜에 해당하는 바, 이들은 東寺 眞言宗 계열이며, 제4그룹은 제32대 眞禎 이후의 別當으로서 仁和寺 眞言宗 御室계열의 황실 출신 승려들이 많이 보임되었다.

그런데, 제24대 別當인 增譽(1032-1116)는 白川・堀川天皇의 護持僧을 담당하였고, 天王寺와 園城寺 등 13개 사찰의 별당을 겸직하며 天台宗의 최고위인 座首까지 올라간 고승이었지만[23], 廣隆寺 입장에서는 이제까지 道昌의 門弟들이 임명되어 왔던 관례를 깬 인사이었기에 『補任次第』增譽條는 廣隆寺의 승려가 增譽의 별당 취임에 반발하여 寺務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때문에 增譽 이후에는 東寺 계열의 眞言宗 승려가 별당을 맡게 되었다. 이러한 소동은 廣隆寺가 고대로부터 元興寺, 그리고 東寺로부터 일관되게 별당을 받아들인 사실, 달리 말하면 廣隆寺가 元興寺나 東寺에 차례로 장악되어 있었던 사실을 시사한다.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補任次第』는 기술방식에 따라 3부분으로 나눌 수 있었는데, 이는 교학배경에 따른 구분과도 연관성을 보인다. 즉, 제1부분은 제1그룹과 일치하며, 제2부분은 제2, 제3그룹과, 제3부분은 제4그룹과 거의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면, 『補任次第』는 제3그룹, 즉 東寺 眞言宗에서 廣隆寺 별당을 맡게 되면서 그동안의 자료를 취사선택하여 새로 작성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이 때문에 대별당과 소별당을 구별하지 않았으며, 泰鳳의 이름도 탈락된 것으로 짐작된다. 元興寺는 平安遷都

23) 關口 力, 「中關白家と熊野--隆家と增譽を中心として」, 『國學院雜誌』80-10, 1979, pp. 48-58.

이후 점차 쇠락하여 增譽 당시에는 매우 피폐한 상태이었으므로 廣隆寺를 영향 하에 둘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24], 따라서 그동안의 東寺 眞言宗과의 관계에 의하여 東寺의 승려가 별당에 보임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제32대 眞禎 이후에는 별당의 출신이 東寺 眞言宗에서 仁和寺의 황실 계통의 승려로 변화함에 따라 별당의 역할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된 것으로 추측된다.

그렇지만, 제2부분, 즉 제2/제3그룹의 경우는 보임월일까지 기록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廣隆寺의 직접자료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록 편찬상의 작의성은 있지만 각별당들의 출신배경과 보임 연월일은 신뢰해도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廣隆寺와 奈良불교와의 관련을 검토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제1그룹의 별당들은 신빙성의 문제가 있다. 특히 제2대 道慈는 大安寺의 승려로 널리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元興寺 三論宗으로 주기하였으며 또한 60년간이나 別當職에 있었다고 기록하는 등 신뢰하기 어렵다. 그리고 그 이후의 별당들도 다른 문헌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는 승려가 대부분이다. 다만 774년에 제7대 別當으로 취임한 明澄은 『法輪寺緣起』에 의하면 제9대 별당 道昌의 스승이었으며, 道昌도 862년에 廣隆寺 別當을 사임하고 868년에는 元興寺의 別當에 補任되었으므로, 적어도 奈良시대 후반 이후의 廣隆寺 別當이 元興寺 계열이었음은 틀림이 없을 것이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그 앞의 別當들도 元興寺 계열의 승려들이 보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廣隆寺에는 적어도 8세기 후반의 明澄부터 9세기 전반까지 일관하여 元興寺 계열의 승려가 別當으로 보임되었고, 그 이후

24) 1035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堂舍損色檢錄帳』는 당시 元興寺의 쇠락 상태를 잘 전해주고 있다.

에도 12세기까지 道昌의 맥을 잇는 元興寺 계열의 別當들이 보임되었기 때문에, 廣隆寺와 元興寺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廣隆寺의 교학은 元興寺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으며, 초기밀교 또한 元興寺를 통하여 수용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實錄帳』에 의하면, 廣隆寺의 금당과 강당에는 大般若經, 金剛般若經, 般若心經이 안치되어 있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경전들은 三論宗과 관련된 것이므로 이러한 경전의 존재는 廣隆寺와 元興寺의 교학의 연관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5. 元興寺의 초기밀교

元興寺는 平城京에 있던 大刹이며, 三論宗과 法相宗의 사찰로 널리 알려져 있다. 元興寺와 三論宗과의 관계는 元興寺의 전신인 飛鳥寺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625년 고구려는 慧灌을 일본에 보냈는데, 慧灌은 隋에 건너가 吉藏으로부터 三論을 수학하였다고 알려진 인물로써, 일본에 건너와 飛鳥寺에서 三論宗을 열었다.[25] 622년 당시의 일본에는 본격적인 사찰이 飛鳥寺와 法隆寺, 四天王寺 정도로 매우 적었기 때문에 불교 교학이 그다지 발달하지 못한 상태이었을 것이므로 慧灌의 三論宗은 일본 최초의 교학으로 자리잡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8세기에 들어서면 入唐求法僧인 道慈가 이를 더욱 발전시켜 奈良불교를 대표하는 종파로 발전하였다. 또한 廣隆寺의 제1대 별당으로 기록된 道昭는 入唐 留學하여 玄奘에게서 法相宗을 배워 元興寺에서 전한 인물이므로, 元興寺는 奈良시대의 교학불교의 요람과 같은 기능을 담당한 사찰이었다.

---

25) 凝然, 『三國佛法傳通緣起』中卷(大日本佛敎全書 第62卷)

元興寺의 초기밀교에 대해서는 자료상의 한계도 있어서 분명하지 않지만, 元興寺의 초기밀교를 대표하는 승려로써 護命(750-834)을 들 수 있다. 護命은 천태종의 개창자 最澄과 논쟁을 벌인 奈良불교를 대표하는 학승이며, 僧正까지 오른 인물이다. 『續日本後紀』承和元年의 卒傳에 의하면, 護命은 美濃國(현재의 岐阜縣) 출신으로 俗姓은 秦氏이었다. 15세에 元興寺의 萬燿법사를 스승으로 하여 吉野에서 고행을 하였고, 17세에 득도한 후에는 勝虞에게서 法相大乘을 학습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달의 상반은 깊은 산에서 虛空藏法을 닦고, 달의 하반은 元興寺에서 宗旨를 연구하였다고 한다. 즉, 護命은 법상종의 학승이면서 수행승으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었다.

일찍이 薗田香融씨는 護命의 虛空藏法 수행에 대하여 주목할 만한 연구를 발표한 바 있다.[26] 護命이 수행한 깊은 산은 吉野이며, 虛空藏法은 自然智宗으로도 불렸는데, 이것은 『虛空藏菩薩能滿諸願最勝心陀羅尼求聞持法』에 의거한 修法을 가리키는 바, 이 법은 善無畏가 717년에 번역하였으며, 道慈가 718년에 일본에 들여온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허공장법은 백일 동안 허공장보살의 다라니를 백만 번 부르는 것인데, 그러면 지혜가 열려서 聞持 즉, 기억력이 좋아져 한번 들었던 것은 잊지 않는 능력이 생긴다고 한다. 당시의 승려들은 도첩이나 승진에 『法華經』 또는 『最勝王經』의 암송이 요구되었기 때문에[27] 虛空藏法은 승려들에게는 꼭 필요한 수행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허공장법을 전한 道慈는 三論宗의 고승으로 平城京의 大安寺를 조영하였는데, 薗田씨는 道慈를 통해서 三論宗 사찰인 大安寺와 元興寺에 虛空藏法이 계승되었고, 大安寺 계열은 善義와 勤操를

---

26) 薗田香融, 「古代佛教における山林修行とその意義」, 『南都佛教』4, 1957, pp. 45-60.

27) 『續日本紀』天平6年11月21日條(新訂增補國史大系本).

거쳐 진언밀교의 개창자 空海까지 이어졌으며, 元興寺의 虛空藏法은 道慈와 동시대의 승려인 神叡에 의하여 시작되어 尊應과 勝虞를 거쳐 奈良시대 후반에는 護命에게 계승되었다고 한다.

神叡와 護命은 당대 유수의 학승이었지만, 한편으로는 吉野에서 밀교 경전에 바탕을 둔 虛空藏法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虛空藏法은 善無畏가 번역한 밀교 경전에서 근거한 것이기는 하지만, 승려 개인의 지혜를 얻고자 하는 祈願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大日經』이나『金剛頂經』등에 근거하여 체계화된 진언밀교와는 비교될 수는 없으며,『日本靈異記』에 산견하는 俗人들의 現世祈福的 신앙과 상통하는 초기밀교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이해된다.[28]

그리고,『七大寺日記』(1106년)와『七大寺巡禮私記』(1140년)에도 원흥사의 초기밀교 양상을 알려주는 주목할 만한 기사가 있다. 두 문헌은 大江親通이 奈良의 고찰을 답사하고 기록한 것으로, 비록 12세기 전반에 찬술된 것이기는 하지만, 奈良시대의 사찰들의 상황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이다.『七大寺日記』는 금당 본존인 미륵여래좌상의 협시로써 4구의 상이 있는데, 모두 金色의 立像이라고 하며,『七大寺巡禮私記』에는 미륵의 협시로써 無著 및 世親의 像, 그리고 千手觀音像 2구가 안치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강당에는 丈六의 약사여래좌상과 八척의 좌우협시보살상 및 권속상이 안치되어 있었다고 전한다.

元興寺의 금당에 본존인 미륵여래좌상의 협시로써 無著 및 世親의 像과 함께 周丈六의 千手觀音像이 2구 안치되었던 점은 주목할 만하다. 미륵 및 無著, 世親은 法相宗의 상이지만, 천수관음상은 法相宗의 교학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周尺 1척은 약 22.5cm이므로, 입상이라면 360cm에 달하는 巨像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천수관음상이 언제 왜 조성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元興寺는 平安시

28) 이 때문인지 천태종의 最澄는 自然智宗을 '無所稟'이라고 비판하였다.

대에 들어서 쇠락의 경향을 보이므로 周丈六의 대형 천수관음상은 奈良시대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廣隆寺의 不空羂索菩薩立像이 311cm이므로 그보다 큰 천수관음상이 본존의 좌우에 안치되었다는 것은 당시 元興寺내에서의 초기밀교가 중요한 위상을 점하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29] 또한 元興寺 강당에 안치되었던 丈六藥師如來坐像과 권속상도 현존하지 않으므로 그 모습과 조성시기는 확인할 수 없지만, 현세이익을 추구하는 약사여래의 본질상 초기밀교적인 성격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元興寺는 쇠락하여 奈良시대의 초기밀교 양상을 보여주는 불상은 거의 남아있지 않지만, 塔堂院에 전래한 것으로 알려지는 약사여래입상(그림1)은 주목할 만하다. 이 상은 엄한 상호와 당당한 체구가 특징이며, 平安 전기를 대표하는 一木造 불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처럼 元興寺내에는 초기밀교가 8세기 초의 神叡이래 護命까지 이어지고 있었고 천수관음상이나 약사여래상과 권속상 등 초기밀교계통의 불상이 조성되고 있었다. 元興寺 출신의 승려가 잇달아 別當으로 취임했던 廣隆寺에는 당연히 元興寺의 초기밀교가 수용되었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30]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廣隆寺의 不空羂索菩薩像이나 阿彌陀如來像은 奈良불교미술의 도상과 양식을 계승하고 있었다. 원흥사는 奈良의 4대 官寺의 하나이었던 만큼 사찰의 조영이나 불상의 조성에는 官營造佛所의 공인들이 종사하였을 것이므로[31], 元興寺의 영향 하에 있던 廣隆寺의 불상 조

29) 大安寺의 경우에도『資財帳』에는 초기밀교와 관련된 불상은 거의 찾아볼 수 없지만, 현존하는 불상의 대다수는 초기밀교와 관련된 상이다.

30) 護命은 출생지가 美濃國이지만 秦氏 출신이므로 秦氏 本系의 氏寺라고 할 수 있는 廣隆寺에 대한 인식은 남다른 면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31)『七大寺巡礼私記』에 의하면 元興寺내에 안치된 불상의 대부분이 '神妙' '奇妙' '不可思議' '日本一' 등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元興寺 불상들의 조형적 수준이 매우 뛰어났음을 알 수 있다.

성에도 관영 공인들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6. 廣隆寺의 재건과 초기밀교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廣隆寺는 818년에 화재로 가람이 소실되기 이전부터 초기밀교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고, 가람 재건 이후에도 그 성격은 변하지 않고 계승되었다. 그런데 廣隆寺의 재건을 이끈 道昌은 진언밀교의 개창자인 空海의 제자이었다. 진언밀교는 9세기에 들어서 널리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그렇다면 도창은 廣隆寺를 왜 진언밀교의 가람으로 재건하지 않았을까? 필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를 생각하고 있다.

첫째, 道昌은 비록 空海의 제자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奈良불교 계통의 승려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道昌은 空海에게서 밀교 관정을 받고 嵯峨野에 허공장법도량으로 유명한 法輪寺를 세운 것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空海의 사후 實惠와 眞紹, 眞濟, 眞雅, 眞然 등이 진언밀교의 계보를 이으면서 東寺와 高野山의 주지를 맡았으며, 道昌은 廣隆寺의 별당을 사임한 후에는 元興寺의 별당으로 보임하는 등 元興寺의 승려로 문헌자료에 소개되어 있다. 즉, 道昌은 空海로부터 밀교관정을 받았지만, 진언밀교 계통보다는 초기밀교적인 성격이 강한 奈良불교 계통의 승려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道昌의 뒤를 이은 제2그룹의 별당들도 元興寺 三論宗 출신이므로 廣隆寺는 奈良불교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진언밀교는 앞서 소개한 東寺나 神護寺와 安祥寺 등 官寺나 황실, 귀족들의 후원으로 건립된 사찰을 중심으로 유포되었고, 복잡한 經軌에 의한 修法은 서민들이 가까이 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었다. 또한 진언밀교는 9세기 중반이후에 크게 유행하였고, 더

욱이 平安京內에는 國家官寺인 東寺와 西寺만이 건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서민들이 의지할 수 있는 곳은 매우 제한되어 있었다.

셋째, 9세기에 들어서 진언밀교가 발전한 것은 틀림없지만, 廣隆寺의 재건이 있었던 836년에서 858년까지의 시기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전형적인 진언밀교 사찰이 없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진언밀교의 본산인 東寺의 경우, 824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강당의 밀교불상들이 空海 입적(835)후인 839년에 완성되었다. 그리고 진언밀교의 또 하나의 근거지인 高野山도 818년경에 조성되기 시작했지만 역시 空海 입적보다 훨씬 후인 887년에야 완성되었다. 廣隆寺의 재건 당시에 존재했던 진언밀교 사원은 京都의 神護寺와 安祥寺, 大阪의 河內에 세워진 觀心寺 정도인데, 이들 사찰에 공통되는 전형성은 없었으므로 廣隆寺를 진언밀교적인 성격의 가람으로 하고 싶어도 참고로 할 만한 전형적인 모델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道昌은 이상과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平安京의 민중들이 쉽게 의지할 수 있는 靈驗道場으로서 화재 이전부터 지니고 있던 초기 밀교적인 성격을 강하게 부각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廣隆寺의 이러한 성격은 재건 이후 약 300여 년이 지난 1150년의 가람 소실에 따른 1165년의 재건까지도 이어졌다.

7. 맺음말

廣隆寺의 초기밀교와 元興寺와의 관계에 대하여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첫째, 『實錄帳』에 기록된 廣隆寺의 불상들은 奈良시대에 이미 유행했던 초기밀교의 양상을 보이고 있었으며, 경전과 건물도 奈良불교의 요소를 지니고 있었다.

둘째, 『補任次第』를 검토한 결과, 7세기 후반에서 11세기에 이르는 廣隆寺의 역대 別當은 元興寺 三論宗 계열의 승려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廣隆寺의 교학이나 초기밀교는 元興寺로부터 수용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셋째, 元興寺의 초기밀교는 神叡와 尊應, 勝虞를 거쳐 護命에 계승된 虛空藏法을 통하여 알 수 있으며, 금당에 안치된 千手觀音像, 탑당원 전래의 약사여래입상은 元興寺의 초기밀교의 實例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元興寺의 초기밀교는 別當을 통하여 廣隆寺에 수용되었고, 불상의 조성에도 元興寺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道昌과 그 제자들이 진언밀교의 직계가 아니었으며, 당시의 平安京의 불교 사정과 진언밀교 가람의 전형이 없었던 점 등이 고려된 결과 초기밀교적인 성격이 부각된 가람으로 재건되었다고 추정하였다.

廣隆寺는 한국계 이주민인 秦氏에 의하여 창건되었고, 국보83호 반가상과 흡사한 모습의 보관미륵상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나, 奈良시대에는 三論宗과 함께 초기밀교가 교학적 배경을 이루고 있었다. 또한 한국계의 葛井氏가 조성한 大阪 葛井寺의 천수관음상도 초기밀교를 대표하는 불상이다. 이와 같은 奈良불교, 특히 한국계 씨족 사찰의 초기밀교적인 양상은 통일신라의 초기밀교에 대한 검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해서는 별고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續日本紀』
『七大寺日記』

『七大寺巡礼私記』
『三國佛法傳通緣起』
『堂舍損色檢錄帳』
『大正新修大藏経』第18卷

임남수,「廣隆寺의 本尊佛의 變化와 그 意義」,『미술사학연구』244, 2004, pp. 5-32.
_____,『廣隆寺史の研究』, 中央公論美術出版, 2003.
淺井和春, 「廣隆寺講堂阿弥陀如來坐像の造立年代について」, 『國華』 974, 1974, pp. 5-11.
_____,『不空羂索・准胝觀音像』, 至文堂, 1998, pp. 41-43.
追塩千尋,「道昌をめぐる諸問題」,『南都佛教』67, 1992, pp. 35-58.
奥武夫,『虛空藏菩薩像』, 至文堂, 1998
佐々木守俊,「廣隆寺藏 不空羂索觀音菩薩立像」,『國華』1268. 2001, pp. 20-24.
關口 力,「中關白家と熊野--隆家と增譽を中心として」,『國學院雜誌』 80-10, 1979, pp. 48-58.
薗田香融,「古代佛教における山林修行とその意義」,『南都佛教』4, 1957, pp. 45-60.
長岡龍作, 「阿彌陀図様の継承と再生-光明皇后御齋會阿弥陀如來像をめぐって」,『文化史の構想』, 吉川弘文館, 2003. pp. 272-300.
中野聰,「法隆寺伝法堂西の間阿弥陀如來坐像の印相について」,『美術史研究』41, 2003, pp. 147-164.
水野敬三郎等,『日本彫刻史基礎資料集成 平安時代 重要作品篇』2, 1976.
毛利久,「廣隆寺本尊と移轉の問題」,『史迹と美術』189, 1948, pp. 201-214.
山岸公基, 「千手觀音像に關する二、三の問題--経軌と8～9世紀の中國(四川省)・日本の作例をめぐって 」,『シルクロード學研究』 11, 2001. pp. 127-136.
_____,「盛唐の千手觀音彫像と葛井寺千手觀音像」,『仏教芸術』262, 2002, pp. 99-113.

Early Esoteraic Buddhism of *Koryu-ji* and *Gango-ji*

Lim, Nam-Su

By studying why *Koryu-ji*(廣隆寺) succeeded to Early Esoteric Buddhism of *Nara* period, instead of Mantra Esoteric Buddhism, and how it was accepted by *Koryu-ji*, this paper reached to following conclusions.

First, Buddha images of *Koryu-ji* appearing in『*Inventory Record*(實錄帳)』show the feature of Early Esoteric Buddhism, already prevailed in *Nara* period, and Sutras, as well as Buildings, bears the character of Buddhism of *Nara* period.

Second, our review of『*Appointment Order*(補任次第)』shows that the *Betto*(別當, the chief priest) of *Koryu-ji* from later 8th century till 11th century were monks of the lineage of *Three Treatises School*(三論宗) of *Gango-ji*(元興寺). So, we could conclude that academic tradition or Early Esoteric Buddhism was received from *Gango-ji*.

Third, I can grasp Early Esoteric Buddhism of *Gango-ji* through *Akashagarbha Morning Star Mantra*(虛空藏求聞持法) succeeded to *Gomyo*(護命) via *Shinei*(神叡), *Sonoh*(尊應), *Shogu*(勝虞). Image of *Thousand-Armed Avalokitesvara* enshrined in the Main building and Statue of *Bhaisajyaguru* of *Stupa site* would be the evidences of Early Esoteric Buddhism. Such Early Esteric Buddhism of *Gango-ji* was accepted by *Koryu-ji* through the *Betto*'s of the past. It is inferred that *Gango-ji* influenced on construction of Buddhist images of *Koryu-ji*, too.

Finally, there was no example of Mantra Esoteric Buddhist temple at time when *Koryu-ji* was reconstructed, and *Dosho*(道昌) was not in direct lineage of Mantra Esoteric Buddhist, either. I inferred that it was reconstructed to be a temple with strong traits of Early Esoteric Buddhism as a result of consideration about situation of Buddhism in *Heian capital*(平安京) that time.

Key words : Koryu-ji, Early Esoteric Buddhism, *Appointment Order of Koryu-ji*, Gango-ji, Buddhism in Nara Period

임남수
소속: 영남대학교 조형대학 미술학부
주소: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241-1 영남대학교
전화번호: 053-810-3313
전자우편: yuart@ynu.ac.kr

이 논문은 2009년 10월 31일 투고하여
2009년 12월 10일까지 심사완료하여
2009년 12월 31일 간행함